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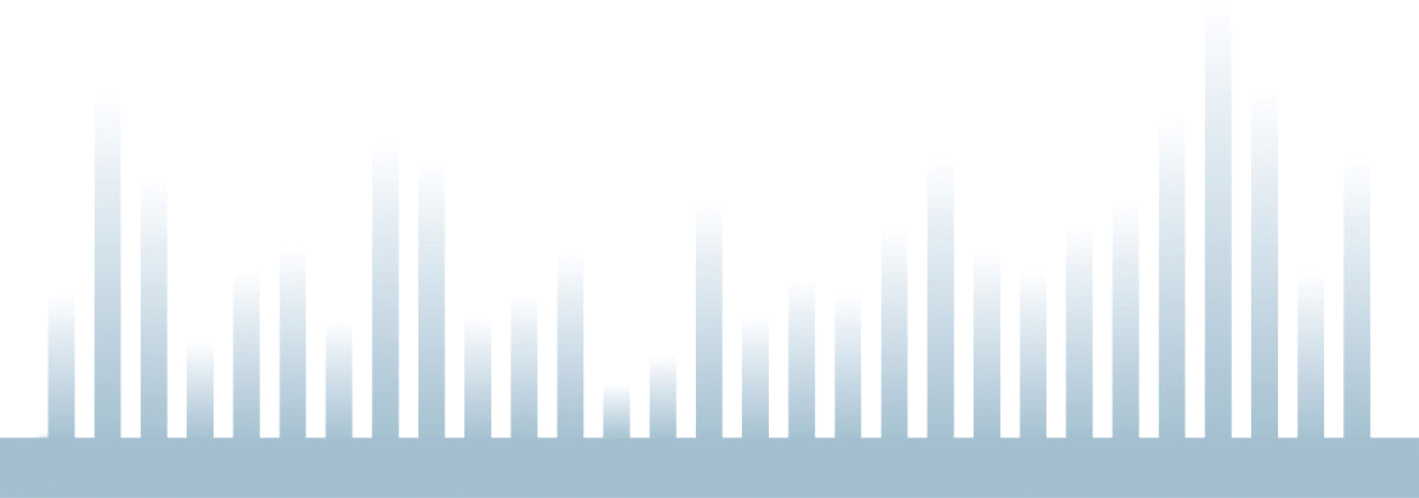
## 생생리포트

### ■ 서울지역

####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

박희석 센터장·양승희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양승희 연구원 sunsh@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1. 머리말
2. 서울지역 미용산업 특징
3. 자치구별 미용산업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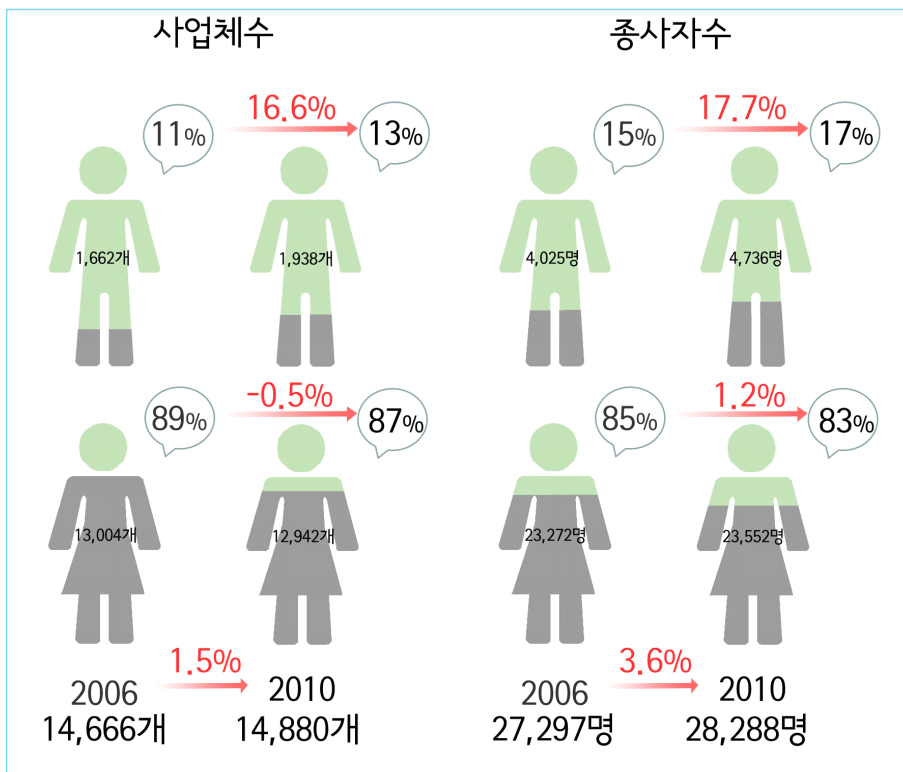
\* 본 내용은 서울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 1. 머리말

- 미용산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미용기술과 비교적 적은 투자비를 들여 여성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
  - 미용학원,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미용기술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
  - 또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으로 여성 특유의 서비스 마인드가 강조되고 진입장벽이 낮아 주부 등 여성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음
- 현재 미용실은 과열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되고 프랜차이즈로 대형화되면서 동네 미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 2010년 서울의 미용실은 14,880개로 5년 전에 비해 1.5% 증가하였고 종사자도 28,288명으로 3.6% 증가
  - 미용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대형화·전문화된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서 지역별로 가격의 양극화 발생
  - 반면 대부분 동네(개인) 미용실은 자세한 상권분석 없이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판단으로 상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업 후 운영난에 빠지며 폐업과 과도한 가격경쟁에 내몰리게 됨
- 따라서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미용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치구별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함
  - 2006년, 2010년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조직형태 등 미용산업의 5년 전·후를 비교분석
  - 2010년 사업체조사를 기점으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분석하여 자치구별 미용산업의 현황분석
  - 업종은 9차 산업코드 중 세세분류인 두발미용업(코드번호 96112)으로 한정

## 2. 서울지역 미용산업 특징(2006vs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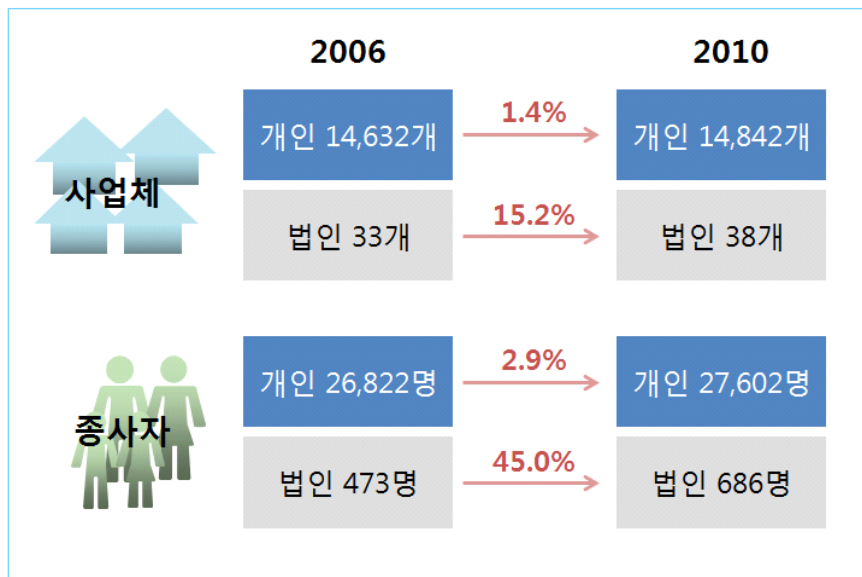
- 2010년 서울지역 미용산업은 5년전(2006년)에 비해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남자의 성장이 두드러짐
  - 2010년 남자가 대표로 있는 미용실은 2006년에 비해 16.6% 증가한 반면 여자대표 미용실은 0.5% 감소
  -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5년전에 17.7% 증가한 반면 여자는 1.2% 증가
  - 과거에는 미용업이 여성에게 유리한 업종이었으나 남자들도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남자 디자이너나 남자가 대표로 있는 미용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0)

[그림 1] 미용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형태의 미용실은 2006년에 비해 5개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규모가 45.0%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화·전문화 진행
- 2010년 개인미용실은 14,842개로 5년 전에 비해 1.4% 증가하였지만 법인은 38개로 15.2% 증가
  - 개인미용실의 종사자는 5년 전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나 법인형태의 미용실 종사자는 45.0% 증가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봐도 50~9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미용실이 가장 증가



주 : 2006년 사업체조사 중 비법인단체 미용실(사업체 1개, 종사자 2명) 제외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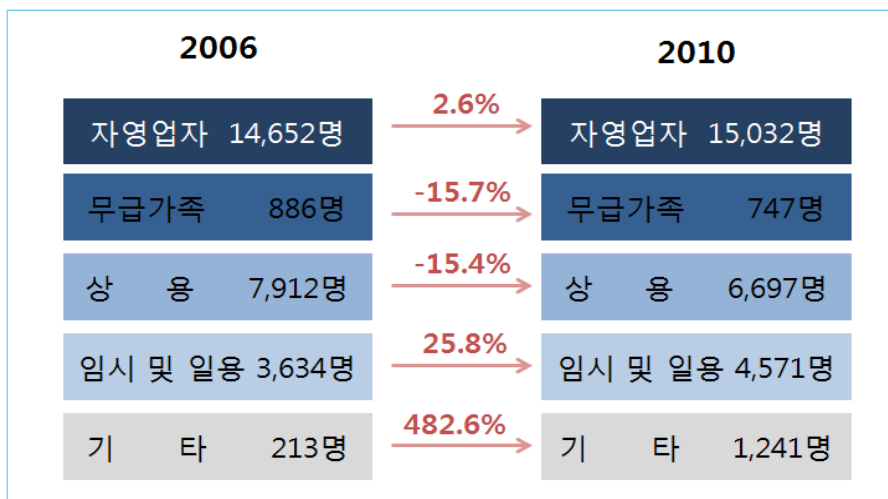
[그림 2] 조직형태별 미용실 사업체와 종사자

<표 1> 종사자 규모별 현황

	2006년	2010년	증가율(%)
1 ~ 4명	19,969	19,861	-0.5
5 ~ 9명	3,528	2,843	-19.4
10~19명	2,202	3,102	40.9
20~49명	51	66	24.5
50~99명	168	701	317.3

○ 5년 동안 무급가족과 상용근로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1인 체제의 생계형 자영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서울지역 미용실의 53.1%는 자영업자이고 2006년 전에 비해 2.6%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과 상용근로자는 2006년 대비 각각 15.7%, 15.4% 감소
- 가장 큰 변화는 기타 종사상 지위가 482.6% 증가하였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화전문화가 되면서 디자이너에게 실습을 받는 스탭의 고용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자료 :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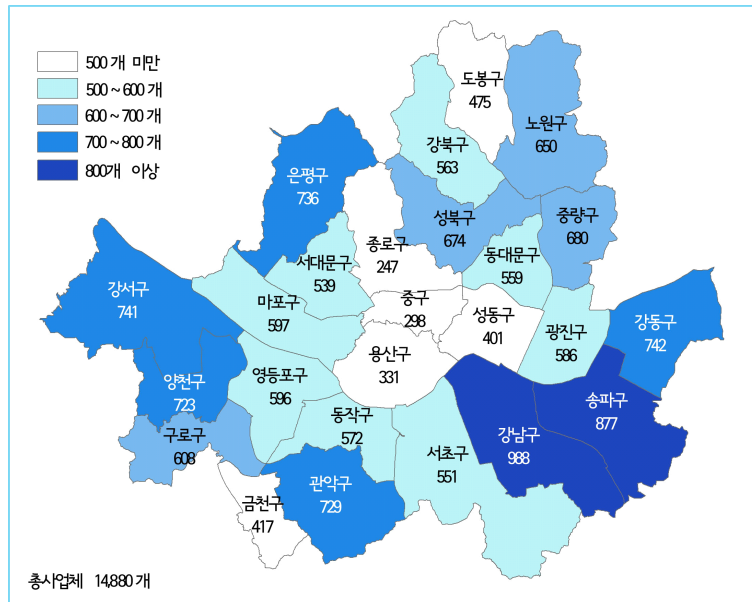
[그림 3] 미용실 종사상 지위

<표 2> 종사상 지위의 의미

종 류	의 미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 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채용 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 등
임시근로자	임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사업완료기간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자 등
일용근로자	임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3. 자치구별 미용산업 현황(2010년 기준으로)

- 서울의 미용실은 14,880개이고 강남구에 서울 미용실 사업체의 6.6%로 가장 밀집
  - 미용실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988개)로 서울 미용실 사업체의 6.6%를 차지하고 이어 송파구(877개, 5.9%)순
  - 종로구는 미용실이 가장 적게 분포된 자치구로 서울 미용실 사업체의 1.7%(247개)를 차지
  - 미용실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고 그 외 자치구에는 고르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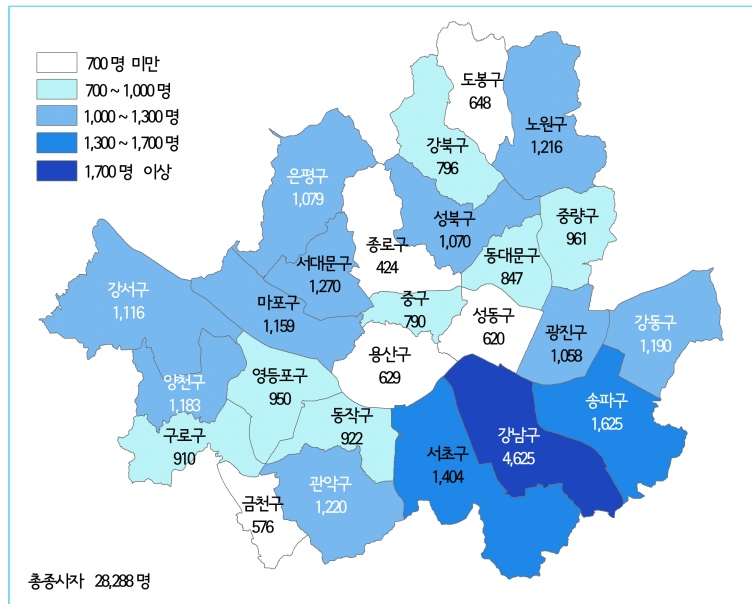


[그림 4] 2010 자치구별 미용실 현황

- 서울의 미용업 종사자는 28,288명이고 강남구에 서울 미용 종사자의 16.3%로 가장 많이 종사
  - 미용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4,625명)로 서울 미용 종사자의 16.3%를 차지하고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많음
  - 그 다음으로 송파구(1,625명, 5.7%), 서초구(1,404명, 5.0%), 서대문구(1,270명,

4.5%) 순

- 종로구는 미용업 종사자가 가장 낮은 자치구로 서울 미용 종사자의 1.5%(424명)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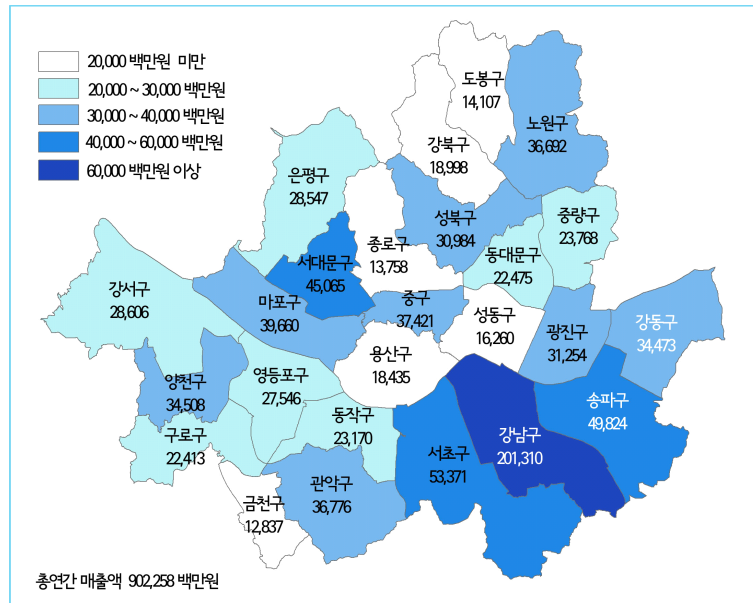


[그림 5] 2010 자치구별 미용실 종사자 현황

○ 서울지역 미용업 매출액은 902,258백만원이고 강남구에서 서울 미용실 매출액의 22.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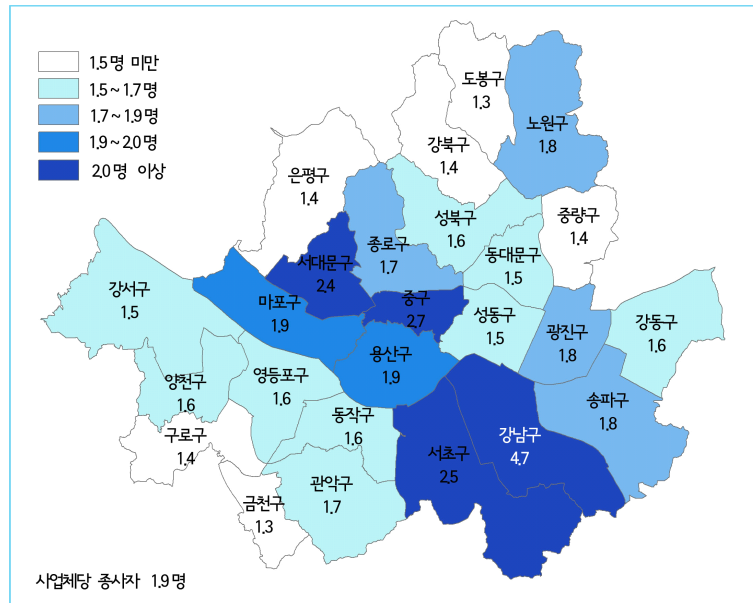
- 매출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도 강남구(201,310백만원)로 서울 미용실 매출액의 22.3%를 차지
- 서초구(53,371백만원, 5.9%), 송파구(49,824백만원, 5.5%), 서대문구(45,065백만원, 5.0%) 순으로 서울 미용실 매출액의 5% 대를 차지
- 매출액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12,837백만원, 1.4%), 종로구(13,758백만원, 1.5%), 도봉구(14,107백만원, 1.6%), 성동구(16,260백만원, 1.8%)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 매출액 패턴은 종사자 패턴과 비슷한 순서대로 나타남. 이는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문화·대형화가 되어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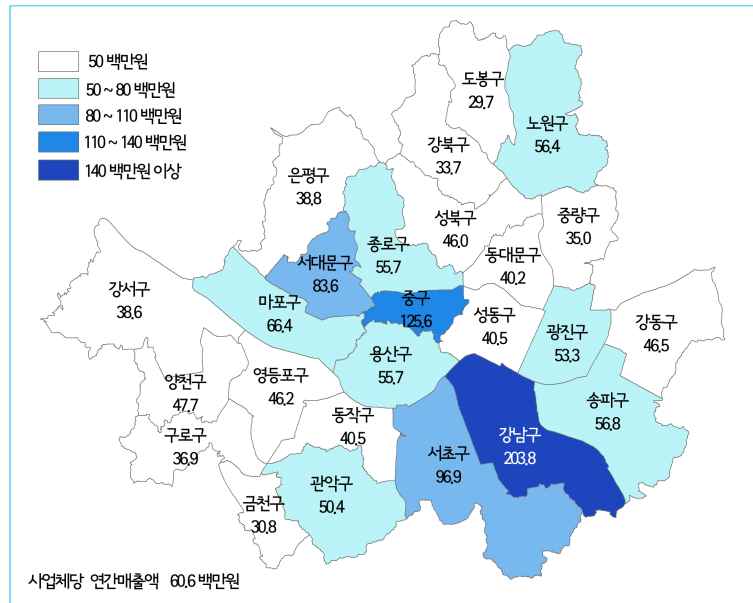
[그림 6] 2010 자치구별 미용실 매출액 현황

-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평균 1.9명을 두고 있고 대부분 규모가 작은 영세한 미용실 형태를 띄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평균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강남구(4.7명), 중구(2.7명), 서초구(2.5명), 서대문구(2.4명)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당 종사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많아서 가장 낮은 금천구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음
  - 강남구, 중구, 서초구, 서대문구(학교상권/ 이대, 연대, 홍대 등) 는 사업체보다 종사자수가 많은 자치구로 압구정동, 청담동, 명동, 이화여대 등 패션·미용·뷰티의 여성중심적인 상권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전문화된 프랜차이즈 형태의 미용실이 많음
  - 금천구와 도봉구는 사업체당 종사자 1.3명이이고 은평구, 강북구, 구로구는 사업체당 종사자 1.4명으로 자영업이거나 영세한 것으로 보임



[그림 7] 2010 자치구별 미용실 사업체당 종사자 현황

-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평균 60.6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평균치를 하회
  -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203.8백만원)로 최저 자치구 도봉구보다 9배 정도 높음
  - 강남구, 중구(125.6백만원), 서초구(96.9백만원), 서대문구(83.6백만원), 마포구(66.4백만원) 등 5개의 자치구만 사업체당 연간매출액 평균 60.6백만원 상회
  -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이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29.7백만원)이고 금천구(30.8백만원), 강북구(33.7백만원) 순으로 낮음. 그 외 17개 자치구 모두 사업체당 연간매출액 평균을 하회



[그림 8] 2010 자치구별 미용실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현황

#### 4. 결론 및 시사점

- 미용산업은 사업체, 종사자 모두 증가 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을 정도로 과열 경쟁이 되고 있음
  - 2010년 서울의 미용실은 14,880개로 5년(2006) 전에 비해 1.5% 증가하였고 종사자는 28,288명으로 3.6% 증가
  -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 미용실은 5년 전에 비해 5개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규모가 45.0% 증가한 것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화 진행
- 대형화·전문화된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서 규모와 매출액 등 지역별로 양극화
  - 강남구는 사업체와 종사자, 매출액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서울 미용 산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서울 미용 사업체의 6.6%, 16.3%, 22.3%)
  -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사업체당 매출액의 평균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강남구, 중구, 서초구, 서대문구로 지역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세함. 위의 자치구는 압구정동, 청담동, 명동, 이대 등 패션·미용·뷰티의 여성중심적인 상권을 띄고 있고 프랜차

이즈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그 외 자치구는 사업체당 2명 이하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연간 매출액 평균 60백만원  
을 하회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미용실-자영업 형태로 보임

○ 프랜차이즈로 대형화·전문화 되면서 개인 미용실의 설 자리는 줄어 들 것이고 가  
격경쟁에서 밀리는 것으로 보임. 개인 미용실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지역에 따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필요

- 개인 미용실은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  
소한 상권분석을 통해 입지 선정 필요
-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별·지역별로 상권분석을 할 수 있고  
업종 밀집도, 지원정책 등의 정보 제공
- 개인 미용실은 프랜차이즈보다 동네상권밀착형으로 단골에 대한 서비스 - 일대일 고  
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함

## 참고문헌

-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 <http://sg.seda.or.kr/dragon/sbdc.jsp>(상권정보시스템)

## 부록

〈표 1〉 서울지역 미용실 현황

구 분		2006		2010		증가율 (06대비)
			비율		비율	
총 사업체수(개)		14,666		14,880		1.5
대표자 성별(명)	남자	1662	11.3	1,938	13.0	16.6
	여자	13,004	88.7	12,942	87.0	-0.5
총 종사자수 (명)		27,297		28,288		3.6
	남자	4,025	14.7	4,736	16.7	17.7
	여자	23,272	85.3	23,552	83.3	1.2
조직형태 (개, 명)	개인사업체	14,633	99.8	14,842	99.7	1.4
	법인사업체	33	0.2	38	0.3	15.2
	개인종사자	26,824	98.3	27,602	97.6	2.9
	법인종사자	473	1.7	686	2.4	45
종사자규모 (명)	1~4	19,969	73.2	19,861	70.2	-0.5
	5~9	3,528	12.9	2,843	10.1	-19.4
	10~19	2,202	8.1	3,102	11.0	40.9
	20~49	51	0.2	66	0.2	24.5
	50~99	168	0.6	701	2.5	317.3
종사상지위 (명)	자영업자	14,652	53.7	15,032	53.1	2.6
	무급가족	886	3.2	747	2.6	-15.7
	상용	7,912	29.0	6,697	23.7	-15.4
	임시 및 일용	3,634	13.3	4,571	16.2	25.8
	기타	213	0.8	1,241	4.4	482.6

〈표 2〉 자치구별 미용실 현황(2010)

자치구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연간매출액 (백만원)	사업체당 종사자	사업체당 매출액
종로구	247	424	13,758	1.7	55.7
중구	298	790	37,421	2.7	125.6
용산구	331	629	18,435	1.9	55.7
성동구	401	620	16,260	1.5	40.5
광진구	586	1,058	31,254	1.8	53.3
동대문구	559	847	22,475	1.5	40.2
중랑구	680	961	23,768	1.4	35.0
성북구	674	1,070	30,984	1.6	46.0
강북구	563	796	18,998	1.4	33.7
도봉구	475	648	14,107	1.4	29.7
노원구	650	1,216	36,692	1.9	56.4
은평구	736	1,079	28,547	1.5	38.8
서대문구	539	1,270	45,065	2.4	83.6
마포구	597	1,159	39,660	1.9	66.4
양천구	723	1,183	34,508	1.6	47.7
강서구	741	1,116	28,606	1.5	38.6
구로구	608	910	22,413	1.5	36.9
금천구	417	576	12,837	1.4	30.8
영등포구	596	950	27,546	1.6	46.2
동작구	572	922	23,170	1.6	40.5
관악구	729	1,220	36,776	1.7	50.4
서초구	551	1,404	53,371	2.5	96.9
강남구	988	4,625	201,310	4.7	203.8
송파구	877	1,625	49,824	1.9	56.8
강동구	742	1,190	34,473	1.6	46.5